

- 주요 뉴스: 美 러시아산 석유·천연가스 수입 금지 선언. EU도 단계적 수입 감축
 - 우크라이나 수미 지역, 임시 휴전을 통해 인도주의적 통로로 민간인 5000명 대피
 - 미국 1월 무역수지 적자 897억달러로 사상최고치 경신
 - 유로존 '21.4분기 GDP 전년동기 대비 +4.6% ('21년 GDP +5.3%)
- 국제금융시장: 미국은 통화긴축 전망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약화

주가 하락[-0.7%], 달러화 약세[-0.2%], 금리 상승[+8bp]

 - 주가: 미국과 영국의 러시아산 원유 금수조치에 유가폭등 영향으로 하락
유로 Stoxx600지수도 미국의 원유 금수 조치 부담감으로 0.5% 하락
 - 환율: 달러화는 사상최고치를 기록한 무역수지 적자와 유로화 반등으로 약세
유로화가치는 0.5% 상승, 엔화는 0.3% 하락
 - 금리: 유가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안 심리로 상승
독일국채금리(10Y)도 낙폭 과다에 따른 반등으로 13bp 상승

※ 원/달러 1M NDF환율(1234.45원, -2.55원) 0.27% 상승, 한국 CDS 1bp 하락

주요지표					주요지표				
		3/8일	3/7일	전일대비			3/8일	3/7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4,170.7	4,201.1	-0.72%	국채금리 10y	미국	1.85%	1.77%	8bp
	유럽	415.01	417.13	-0.51%		독일	0.11%	-0.02%	13bp
	중국	3,293.5	3,372.9	-2.35%	CDS 5y	한국	34bp	35bp	-1bp
	일본	24,791	25,221	-1.71%		중국	62bp	65bp	-3bp
	한국	2,622.4	2,651.3	-1.09%	위험지표	EMBI+	-	416	-
달러지수	99.06	99.29	-0.24%	VIX		35.13	36.45	-3.62%	
유로화	1.0905	1.0854	0.47%	WTI유		124.68	119.40	4.42%	
환율	엔화	115.64	115.32	-0.28%	원자재	구리	473.45	472.2	0.26%
	위안화	6.3187	6.3208	0.03%		금	2,051.7	1,998.1	2.68%
	원화	1,237.0	1,227.1	-0.80%					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미국, 러시아산 석유·천연가스·석탄 수입 금지 선언. EU도 단계적 수입 감축 계획

-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미 의회의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금지 촉구에 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 러시아 에너지 수입을 금지한다고 발표
- 미국의 에너지 금수 조치는 유럽 연합과 공조 없는 단독 대응으로, 영국은 단계적으로 수입을 중단하고, EU는 연말까지 러시아산 가스 2/3를 감축할 계획
- 미국의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은 지난해 미국 전체 에너지 공급의 8% 수준으로 크지 않지만, 미국 휘발유 가격은 '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
- 바이든 대통령의 발표로 국제유가는 폭등세를 지속하여 한때 브렌트유는 6.05% 상승한 130.67달러, WTI는 5.78% 급등한 126.31달러까지 상승
- 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가속화하고 금리는 더 오르며, 금융 여건은 긴축화 되고 소비자와 기업활동은 위축되면서 경기침체가 현실화될 전망(MUFG)
- 서방이 러시아 원유 금수 제재를 할 경우, 러시아는 중국, 일부 CIS국가들에만 원유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서부텍사스산원유(WTI)는 140~150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(Nomura)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우크라이나 수미 지역, 임시 휴전을 통해 인도주의적 통로로 민간인 5000명 대피

- 앞서 러시아 국방부 이고리 코나셴코프 대변인이 키이우와 체르니히우, 수미, 하르카우, 마리우폴 등 5개 도시에서 인도주의적 통로를 개설한다고 밝힌 가운데, 임시휴전을 통해 민간인 5000명(1700여명은 외국인 대학생)의 실제 대피가 이루어짐
- 이날 수미~폴타바 지역의 민간인 대피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인도주의적 통로를 통한 첫 번째 대피 사례
- 한편, 러시아는 3.9일에도 우크라이나 5개 도시에서 휴전을 통해 민간인 대피를 위한 인도적 통로를 운용하자고 제안

■ 미 의회의 NATO 회원국 촉구에 폴란드 MIG-29 전투기 독일 공군기지에 배치

- 미 의회가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탄원에 따라 폴란드와 다른 NATO, 동유럽 국가들 전투기를 우크라이나로 이전하도록 요청함에 따라 폴란드는 모든 자국 MIG-29 전투기를 독일의 람슈타인 공군기지에 배치하고 미국의 처분에 따라 행동할 준비

■ 미국 1월 무역수지 897억달러 적자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

- 미국의 1월 무역수지 적자가 전월 대비 77억달러(+9.4%) 증가한 897억달러를 기록하여 WSJ 전문가들이 집계한 예상치인 872억달러를 초과

■ 유로존 '21.4분기 GDP 전분기 대비 0.3% 증가, 전년동기 대비 4.6% 증가

- '21년 전체 유로존 GDP 성장률은 5.3%로 예상치인 5.2%를 상회한 수준이며 '20년 -6.4%에 비해 급등세를 보여 '21년 유로존 경제회복세를 반증

■ 일본 1월 경상수지 1조 1890억엔 적자 기록

- 시장예상치(DJ)인 8800억엔 적자보다 실제 적자폭 확대. 1년 6개월 연속 경상수지 흑자를 보이다 '21.12월 적자로 전환된 후 적자폭 확대 기조

주요 경제지표

■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(3/8 현지시각 기준)

- 미국 1월 소비자신용(10억): 6.84, 전월(22.38), 예상치(23.80)
- 일본 1월 경상수지(조엔): -1.189, 전월(-0.371), 예상치(-0.880)
- 독일 1월 산업생산(전월비): 2.7%, 전월(-0.3%), 예상치(0.5%)
- 유로존 '21.4분기 GDP(전년비): 4.6%, 전분기(3.9%), 예상치(4.6%)

■ 주요 경제 이벤트(3/9 현지시각 기준)

- 일본 '21.4Q 전년비 GDP, 중국 생산자/소비자 물가지수
- 미국 API 원유 재고량 증감 등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051, E-mail ljh@kcif.or.kr